<제5강_악에 대한 철학적 고찰>

서양의 전통적 악 개념에 대한 비판

구연상(숙명여대)

1. 아우구스티누스의 악 개념 되살피기: 비롯되는 악에서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로써 일어나는 악'

아우구스티누스는 악은 오직 사람의 잘못된 욕망으로부터만 발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 까닭은 신에 의해 만들어진 모든 것은 그 자체로 선하기 때문이다. 악이 사람의 '죄스러운 욕망'에서 유래한다는 주장은 선한 것으로부터는 오직 선한 것만이 나올 수 있다는 오래 된 믿음에 기초한다. 이러한 생각 틀에 따르자면, 물질로부터는 물질만 나올 수 있고, 정신은 오직 정신으로부터만 낳아질 수 있다. 이는 닭이 닭을 낳는다는 유전의 원리와 다를 바 없다. 있음은 있음에서 나오고, 없음은 없음에서 나오며, 그 둘은 뒤섞일 수 없다. 모든 것은 그것이 저마다의 불변하는 성질, 즉 본성이나 본질을 자체 안에 가질 때만 '자기 자신'으로 있을 수 있고, 그 성질을 잃는 순간 그것은 그 즉시 '다른 것'이 된다.

저마다가 자신의 본질을 영원히 가져야 한다는 믿음은 '저마다에게 저마다의 몫을 나누어 주라'는 올바름(정의, 正義)의 뜻을 강화했다. 고대 그리스 철학이나 서양 중세 철학에서 어떤 것이 선하다는 것은 그것이 자신의 본질을 잘 지키고 있다는 것을 뜻하고, 이는 다시금 어떤 것이 그것 자신으로 있다는 것을 말한다. 어떤 것이 '그 자신'으로 있다면, 그것은 신이 창조해 준 그것의 본성 그대로 있는 것이 된다. '신적 본성'은 선하고 영원한 것으로서 그 어떠한 경우에도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만일 그것이 변형되거나 파손된다면, 그것은 악하게 되는 셈이다.

만일 선(善)이 자연의 모든 것이 저마다가 창조된 그대로 제 본성을 유지하는 가운데 전체적으로 질서를 유지하는 것이라면, 악(惡)은 어떤 것이 그 본성을 잃거나 자연의 전체적 질서를 깨뜨리는 데 놓인다. 그런데 사람처럼 몸과 마음이 복합된 유기체는 그것을 이루는 부분들마다 본성이 다를 수밖에 없고, 그로써 본성들 사이의 충돌이나 혼란이 생길 수 있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에게서 '악'은 주어진 본성들 사이의 무질서 또는 정의롭지 않음에서 비롯된다고 보았고, 그 혼란의 근본 원인이 '탓할 욕망(cupiditas culpanda)'이라고 주장했다.

사람의 욕망은 그 자체로는 선하지만, 만일 그것이 누군가의 본성을 해치거나 그의 의사를 거슬러 그에게 손해를 끼치려는 쪽으로 펼쳐진다면, 그것은 악행의 원인이 되는 것이고, 이러한 "질책 받을 만한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지는(nisi quod libidine, id est improbanda cupiditate)" 행위가 곧 '악'이 된다.[1] 보기를 들어 간통(姦通)이 악한 까닭은 그것이 사람의

1 아우구스티누스 지음, 성염 옮김, 『자유의지론(De libero arbitrio: 388-396년 사이에 쓰임)』, 분도출판사, 1998, 89 쪽 살핌.

성적 욕망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이 아니라 부부애의 본성을 해칠 뿐 아니라, 그 본성의 '맞춤-짝' 가운데 하나인 남편이 그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이며, 더 나아가 간통 행위가 부부애에 손해를 입힘으로써 부부의 질서를 어그러뜨리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우구스티누스가 악의 문제를 신이 창조한 선한 본성이나 자연 질서를 파괴하는 데 근거해 해명하려는 것은, 그가 비록 악을 죄와 갈라 나누고 있긴 하지만, 결국 신의 선함과 완전함 그리고 전능함에 대한 의심을 불러일으킨다는 점에서 문제가 된다. 이때 문제는 크게 두 방향에서 제기될 수 있다. 하나는 우리가 그러한 신을 받아들일 수 있는가, 달리 말해, 그러한 신이 실제로 있다는 것이 사실로 증명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고, 다른 하나는 만일 그러한 신이 있다손 친다면, 과연 죄나 악이 성립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첫 번째 문제는 앞서 우리가 보았던, '악'을 세계의 불완전성 또는 결여로써 설명하는 변신론의 문제와 같다. 하지만 **두 번째 문제**는 아직까지 제기된 적이 없는 문제일 뿐 아니라 악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매우 중요해 보이는 문제이다. 보기를 들어, 그리스도교에서 우상숭배(偶像崇拜)는 가장 큰 죄이다. 우상은 단순히 돌이나 나무 또는 쇠 등으로 만들어진 상징물(象徵物)이 아니라 '성스러운 것'을 위장(僞裝)하는 것이다. 우상에는 '신적 생명'이나 능력이 없다. 다만 사람에게는 우상을 섬길 자유가 주어져 있어야 한다. 성스러움의 관점에서 우상은 '참 신'에 의해 금기시 되는 신을 뜻한다. 만일 누군가 자신의 공동체가 믿는 '참 신'에 의해 금지된 우상을 섬긴다면, 그것은 죄가 될 뿐 아니라, 그 죄로 말미암아 그 자신은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한 공동체 전체가 벌을 받는다면, 그 행위는 악하기까지 하다.

만일 이때 신의 벌이 사람들에게 그 죗값을 치르도록 하는 것일 뿐 아니라, 보다 근본적으로는 그들이 '참 신'이 보장해 주는 행복과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라면, 그 벌은 정당하기를 넘어 선하기까지 하다. 반면 우상은 사람들에게 '올바른 길'을 알려 주지도 않을 뿐 아니라, 그 길을 따르는 사람의 생명과 복을 책임지지도 않는다. 비록 누군가 우상숭배를 통해 복을 받았을지라도 그 복은 끝내는 결코 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것이다. 우상과 참신의 구분이 사람이 끝내 받게 될 어떤 몫(복이냐 화냐)에 따라 이루어진다면, 우상에 의해 선언된 죄는 비록 죄가 될 수는 있을지언정 결코 악이 될 수는 없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참신과 우상을 구별할 수 있는 근거가 그에 대한 믿음의 결과일 수밖에 없다는 데 있다. 누군가 우상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양심적이었을지라도 그의 믿음 자체가 이미 올바르지 않은 한 그의 양심은 악한 결과를 낳는 원인이 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자신이 삶의 궁극적 결과를 아직 모르는 한 어떤 신이 참이고 거짓인지를 구별할 수 없다. 비록 아우구스티누스가 전제한 신이 선하고 영원하고 완전하고 전능할지라도 우리가 그 신을 우상과 구별할 근거가 우리 자신에게는 아직 없다. 즉 그 신은 참일 수도 거짓일 수도 있다. 만일 누군가 그 신을 참신으로 믿고 있다면, 그는 자신이 아직 알 수 없는, 또는 자신의 삶의 끝에서만 확신할 수 있는 구원 문제에 대해 일생일대의 중대한 결단을 한 것이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참신에 대한 믿음의 결단을 통해 이 세계의 악을 설명했다. 만일 우리 가운데 그의 결단에 따르고자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마찬가지 결단을 통해 선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선은 선하고 완전한 신이 창조한 사물의 본성과 질서를 보존해 가는 것이고, 악은 그것을 깨뜨리는 것이다. 다만 선한 삶을 살고자 하는 사람은 신의 창조 목적을 깨달아야 할 뿐 아니라, 만일 참신이 그 목적을 수정했다면, 그는 그 수정된 목적도 재

빨리 알아내야 한다. 아우구스티누스는 사람에게는 '선한 의지'가 주어져 있기 때문에 누구든 신의 목적을 그때마다 알 수 있고, 신의 말씀을 믿음으로써 그 목적을 실천할 수 있다고 보았다.

사람의 의지는 그것이 비록 아무리 선하게 창조되었을지라도 분명 악할 수 있고, 참신에 대한 믿음이 아무리 확고한 사람일지라도 그 또한 신의 말씀이 뜻하는 바를 잘못 알아들을 수 있다. 따라서 신의 목적이 아무리 자명하게 알려져 있다손 치더라도 그 목적에 대한 이해가 사람마다 다를 수 있다면, 우리가 사물의 본성과 의지의 선함과 창조 목적에 대한 합의(合意)된 이해에 도달하지 못하는 한, 우리는 아직 선악에 대한 완벽한 판단에 이를 수 없다. 참신에 대한 믿음을 공유했던 공동체조차도 그 역사적 시기마다 선악의 개념이 달라져 왔다는 사실은 참신에 근거한 선악 관념이 근본적이지 못하거나 상대주의에 빠져들 수밖에 없음을 말해 준다.

두 번째 문제에 속한 또 다른, **보다 심각(深刻)한 문제**는 참신에 근거한 악 개념이 성립되기 힘들다는 점이다. 선한 신은 올바름의 뜻매김에 따를 때 오직 선만을 생각하거나 행하거나 명령할 수 있다. 즉 선한 신은 어떠한 경우에도 악의 유래가 될 수 없다. 선한 신은, 복수가 누군가에게 '악한 결과'를 되갚아 주는 것인 한, '정당한 복수'마저도 할 수 없다. 완전한 신은 그 누구나 그 무엇의 도움이 필요 없을 뿐 아니라, 그 무엇에 의해서도 침해나 피해를 입을 수 없다. 사람은 그가 신에게 어떠한 짓을 할지라도 한 터럭만큼의 영향도 신에게 끼칠 수 없다. 아울러 전능한 신은, 그가 비록 어떠한 침해를 당할지라도, 그 자신이 당한 해악을 즉시 없이하거나 회복할 수 있다.

만일 갓난아이가 조막손으로 아빠의 볼을 때리고 있다면, 아빠는 함박웃음을 지을 것이다. 그것은 아기의 손짓에 아무런 악의도 담겨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아빠가 그로 인해 어떠한 피해도 입지 않기 때문이다. 거꾸로 못된 아빠가 주먹으로 갓난아기를 때린다면, 그것은 그 결과에 따라 악이 될 수 있다.[2] 때리는 것은 같지만, 누가 때리고 누가 맡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딴판이 될 수 있다. 악의 문제에는 저지르는 것과 당하는 것 사이의 관계 문제가 함께 속한다.

사람이 부는 바람에게 욕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것이 바람에게 아무런 피해를 줄 수 없는 한 사람은 바람에게 결코 악을 저지를 수 없다. 이와 달리 사람이 도시를 건설한다면, 그것은 바람의 길을 가로막는 것일 수 있고, 그로써 바람 자체가 멎고, 그로 말미암은 예상치 못했던 수많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그 결과 생태계 교란과 생물 멸종이 일어났다면, 그러한 도시 건설은 악이 될 수 있다.

---

2 채만식, 『탁류(하)』, 범우사, 2002년, 298 쪽: "마치 고깃감으로 사온 닭의 새끼나 다루듯, 형보는 송희의 두 발목을 한 손으로 움켜 거꾸로 도옹동 쳐들고 섰다. (건너뜀) [형보는] 화풀이삼아 언제까지고 이렇게 거꾸로 들었다 놓았다 하면서 에미한테다 기필코 요꼴을 보여줄 심술이었다."

'악'은 저지르는 악행 자체만에 의해 일어나는 게 아니라, 그 악행을 당하는 쪽이 입게 될 손상(損傷)과 관련하여 벌어진다. 만일 사람이 자신이 당한 까닭 모를 재앙에 대해 신에게 저주(咀呪)를 퍼부었을지라도, 그 저주가 신에게 아무런 피해도 끼칠 수 없는 한, 그것은 신에 대한 죄가 될 수는 있지만 악이 될 수는 없다. 반면 만일 사람의 어떠한 행위에 의해서도 아무런 피해를 입을 수 없는 선한 신이 사람의 어떤 행위에 대해 그에게 파멸을 초래하는 복수를 단행한다면, 그것은 '돌이킬 수 없는 악'이 될 것이다.

만일 사람이 신에게 어떤 악을 지을 수 있다면, 그것은 신에 맞선 어떤 '다른 신'을 편들거나 함으로써 신과 '다른 신' 사이의 관계에서 '다른 신'이 유리하도록 할 때는 가능하다. 이는 신과 사탄이 욥의 행동을 두고 서로의 위대함이나 완전성에 대한 내기를 거는 것과 같은 상황에서 벌어질 수 있다. 만일 욥이 사탄의 꾐에 넘어갔다면, 그것은 신에게 불이익 되었을 것이고, 그런 점에서 신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것과 같다. 하지만 이때도 신은 욥을 벌할 수 없다. 왜냐하면 욥은 신에게 아무런 악한 짓도 저지르지 않았기 때문이다.

욥의 고난은 욥이 저지른 악행 때문에 비롯된 것이 아니고, 신이 내리는 벌이나 재앙 또한 신이 당한 악한 결과에 근거한 것일 수 없다. 신은 오직 자신이 정해 준 법과 그것에 따른 죄 그리고 그에 따른 형벌을 집행할 수만 있을 뿐이다. 신의 처벌은 그것이 처벌을 받는 사람의 죄에 대한 것이고, 그로써 죄인이 자신의 죄를 씻고 좋은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한 선하지만, 그 처벌이 사람이 신에게 가한 악에 대한 것이거나, 그 처벌로 말미암아 사람이 멸망을 당한다면, 신의 처벌은 악하다. 사람에 대한 신의 폭력이나 명령적 통치가 그 자체로 선하려면, 신은 사람을 신 자신 앞에서 한없이 무력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달리 말해, 마치 갓난아기를 보살피듯 다루어야 한다. 신에 의한 처벌이나 사망 심판은 신의 행위 자체가 곧 선한 것에 대한 정의가 되는 한에서만 가능할 뿐, 신이 언제나 선하거나 완전한 것으로 이해되는 한에서는 불가능하다.

신에 의한 처벌이 비록 신의 법을 어긴 자에 대한 정당한 응징일 수 있을지라도, 그것이 곧 '악'에 대한 응징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행위가 비록 '악'에 대한 응징일지라도, 그러한 관계 자체가 그 응징이 선하다거나 적어도 악하지 않다는 것을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악'을 '악'으로 갚을 수도 있고, '악'을 '선'으로 갚을 수도 있다. 이때의

'악'은 그것들이 저질러질 정당성을 갖느냐의 여부에서는 다를지라도 '악'이라는 점에서는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신의 심판은, 그것이 아무리 정당할지라도, 악할 수 있는 것이다.[3]

선한 신은 심지어 사람이 신의 소유물이라고 가정할 때조차도 사람에게 그 어떠한 악을 당하거나 저지를 수 없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애완견을 때릴 수 있다. 그것은 개가 주인으로서의 자신의 어떤 권리를 침해했거나 명령을 어겼을 때 정당할 수 있다. 만일 권리를 침해한 경우라는 그 개는 주인에게 악한 짓을 저지른 셈이고, 명령을 어겼다면 주인에게 죄를 지은 것이 된다. 주인은 때리는 대신 밥을 굶길 수도 있다. 때리는 짓고 굶기는 짓은 모두 개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는 악한 짓이다. 개와 주인은 서로 악을 저지르거나 당할 수 있는 관계를 맺고 있지만, 개는 자신이 저지른 '악'을 악으로 이해하지 못하는 반면 주인은 자신이 저지른 '악'을 '벌'로서 이해한다. 하지만 사람의 주인으로서의 신은 그의 권리가 결코 침해될 수 없는 한 사람에게 악한 짓을 할 수 없다.

만일 선하고 완전한 신이 어떠한 경우에도 사람에게나 세상에 대해 '악'을 저지를 수 없다면, 이는 '악'이 사람의 욕망과 같은 곳에서 일방적으로 유래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말한다. 누군가의 욕망이 아무리 악할지라도, 그 악한 욕망으로 말미암아 누군가 또는 무엇이 피해를 당하지 않았다면, 그 욕망은 아직 '악'이 아니고, 비록 누군가 장난이나 좋은 마음으로 어떤 일을 벌였을지라도, 그 일이 누군가를 파멸케 했다면, 그것은 어쨌든 '악'이 된다. '악'은 서로가 피해를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에 놓일 때에만 일어날 수 있다. 이때 누군가의 마음이 악했다거나 선했다거나 하는 것은 벌어진 '악'에 대한 평가 문제에 속한다.

만약 미국과 이라크 사이의 전쟁이 마치 '갓난아기와 어른'의 관계에 빗댈 수 있을 만큼 전력의 차이가 큰 전쟁이었다면, 그것은 어른이 갓난아기의 작은 악을 '돌이킬 수 없는 거대악'으로 되갚은 복수에 가깝다. 자신에게 아무런 피해를 입힐 수 없거나, 입힐 수 있다손 치더라도 그 피해 정도가 미미할 수밖에 없는 상대와 벌이는 전쟁은 악에서의 '저지름과 당함'의 균형이 완전히 깨진 전쟁, 달리 말해, 악의 크기가 너무 기울어진 전쟁이 된다. 작은 악을 너무 큰 악으로 갚는 것은 결국 스스로 악당이 되는 길이다. 사람이 악을 선으로 갚지는 못할망정 작은 악을 빌미로 삼아 큰 악을 저지른다면, 그것은 '핑계 악'이라 할 수 있다.

악은 어떤 비난받을 만한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이 아니다. 그러한 욕망 자체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닐 뿐 아니라, 욕망 자체는 그것으로 말미암은 행위와 동일시될 수도 없다. 누군가 남의 물건을 훔치는 짓을 저질렀다면, 훔치는 짓은 순간적 충동에 따라 일어났을 수도 있고, 갖고 싶다는 탐욕으로부터 발원했을 수도 있고, 어떤 대의(大義)를 위해 계획된 것일 수도 있으며, 정의의 실현을 위한 것일 수도 있다. 만일 우리가 악을 '옳지 않은 욕망으로부터 비롯된 것'으로 뜻매김한다면, 악에 대한 판정은 그 마음의 주인이나 그 마음을 꿰뚫어볼 수 있는 신에게만 가능할 것이다.

---

3 악은 죄와 다른 것일 뿐 아니라, 부정의(不正義)와 같은 것도 아니다. 우리는 아직 만족할 만한 악 개념을 얻지 못했다. 게다가 악은 나쁜 것과도 다르다. 이 강의의 목적은 이러한 차이를 살릴 수 있으면서 현대에서 우리가 경험하는 악의 현상들을 포괄적으로 규정해 줄 수 있는 '악의 뜻'을 찾아내는 데 있다.

우리는 악을 가장 먼저 '저지름과 당함'의 관계로써 일어나는 어떤 것으로 뜻매김할 필요가 있다. 악은 누군가에 의해 저질러지는 것이자 동시에 누군가 당하는 것이다. 누군가 도둑을 맞았거나 모욕을 당해 재산상으로나 정신적으로 피해를 입었다면, 이때의 도둑질과 모욕이 곧 '악'에 해당한다. 도둑질이 '악'이 되기 위해 도둑놈이 반드시 '옳지 않은 욕망'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다. 도둑놈이 아무리 '옳은 욕망'으로 도둑을 했다손 치더라도, 그 도둑질 자체는 당한 사람의 피해를 통해 '악'이 된다. 모욕(侮辱)은, 그것이 누군가의 못된 버릇을 고치기 위한 '선한 욕망'에서 비롯된 것일지라도, 그것이 당하미의 마음을 상하게 한 이상 '악'이 된다.

악이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로써 일어난다는 사실은 악이 말해질 수 있는 범위가 단순히 사람과 사람 사이로 제한될 필요가 없음을 뜻한다. 자연재해는 자연이 사람에게 저지르는 악일 수 있고, 환경파괴는 사람이 자연과 그 안에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생명체에 저지르는 악일 수 있다. 만일 한 개인의 행동이 공동체 전체를 파멸로 몰고 가거나 거꾸로 공동체가 개인의 삶을 짓밟거나 한다면, 그것은 악이 '개인 대 공동체'의 관계에서도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심지어 악은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 사이에서도 벌어질 수 있다. 이때 '저지름과 당함'의 관계는 시간의 일방향성 때문에 상호 작용성의 성격을 잃게 된다. 이는 공간적으로 멀리 떨어진 관계에서 벌어지는 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로써 일어나는 악은 악을 불러일으키는 것에 대한 이해도 바꿔 놓을 수밖에 없다. 만일 과거 한국전쟁 때 적군을 죽이기 위해 설치해 놓은 지뢰들이 60년이 지난 오늘날 적군이 아닌 민간인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고 있다면, 그것은 지뢰를 묻은 사람과 묻도록 명령한 사람, 아울러 전쟁을 일으킨 사람들로 말미암은 악일 뿐 아니라 지뢰가 묻힌 곳을 지나간 사람 자신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다면 지뢰를 만든 사람이나 지뢰를 발명한 사람도 저질러진 악에 저마다의 책임이 있고, 지뢰를 제때 제거하지 않았거나 들어가지 못하도록 강력한 경고를 하지 않은 정부도 악하다.

만일 우리가 악이 비롯되는 원인이나 유래를 오직 '옳지 않은 욕망'에게만 돌린다면, 그것은 우리가 악이 일어나는 사태에 귀를 제대로 기울이려 하지 않는다는 것을 뜻할 뿐이다.

2. 칸트의 악 개념 되살피기:
행위 법칙의 악에서 관계의 악으로

칸트는 악을 단순히 '비난 받을 만한 욕망'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보지 않고, 사람의 본성에 근거한 것으로 보았다. 칸트에게서 사람은 몸과 마음의 복합체이다. 이때 몸은 자연물로서 자연법칙에 따르는 것으로 전제되고, 마음은 자연물과 다른 것으로서 자유의 법칙에 의해 지배될 수 있다고 보았다. 칸트가 말하는 자유는 우리가 흔히 말하는 '먹고 싶을 때 먹을 수 있는 자유'라든가 '공부하고 싶은 사람에게 공부할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라는 의미에서 권리 자유와 같은 게 아니라 몸의 충동이나 욕망(자연적 필요성)으로부터 벗어난 이성적인 어떤 것을 선택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한다. 만일 누군가 굶주리는 엄마와 어린 아들에게 먹을 것을 준다면, 보통 그것을 먹는 것은 아들이 될 것이다. 그것은 엄마가 자유의 능력, 달리 말해, 이성에 근거해 자신의 욕망이나 충동을 억제하고 선택하고 행동할 줄 아는 능력이 있

기 때문이다.
악은 도덕적으로 비난 받아 마땅한 것이다. 자신에게 주어진 재산이나 시간 또는 능력을 헛되이 쓰는 것(낭비, 浪費)은, 그것이 비록 경제적 부의 상징으로서 찬양받거나 부러움의 대상이 될 수는 있을지라도, 도덕적으로는 '헛되이 쓴다'는 점 때문에 비난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비난의 밑바탕에는 아낌이 도덕적으로 선한 것이라는 믿음이 깔려 있다. 만일 우리에게 이러한 도덕적 믿음이 깔려 있지 않다면, 낭비에 대한 비난은 아마도 불가능할 것이다. 돌려 말해, 선악에 대한 판단은, 만일 그것이 도덕적 차원에서 주어져야 한다면, 도덕에 대한 이해에 기초해서만 가능하다.
칸트에게서 도덕은 언제나 자유가 주어진 곳에서만 발생한다. 사람은 이성적 동물로서 이성적 판단 능력을 갖고 있다. 이 능력은 '올바른 인식'을 얻을 수 있는 능력만을 뜻하는 게 아니라 '올바로 행위할 수 있는 능력' 및 전체를 종합할 줄 아는 능력까지 포괄한다. 사람은 올바른 행위를 가능케 하는 도덕 법칙을 깨달을 수 있다. 그것은 사람이 감성적 충동을 지배하는 자연적 필연성을 갖추고 있는 것과 같다. 자연의 법칙이 모든 자연 현상을 필연적으로 지배하듯 도덕의 법칙은 사람의 모든 행위를 보편적이고 객관적으로 규제할 수 있다.
칸트는 모든 사람이 그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주목하기만 하면 선악을 쉽게 구별할 수 있다고 보았다. 그것의 쉬움은 심지어 악을 저지른 사람 자신도 그 자신이 이성적으로 판단하기만 한다면 그 자신의 행위가 '악'이라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을 정도이다. '악'은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싫어하고 미워하고 꺼리는 것이다. 이성적이지 않은 사람은 도덕이 없고, 도덕 법칙을 알 수 없으며, 따라서 그에게는 선도 악도 있을 수 없다. 이성적 능력이 모자라는 사람은, 그가 비록 다른 사람들의 눈에 악을 저질렀을지라도, 스스로는 '악인'조차 될 수 없다.
도덕적으로 악한 것은 누군가 자신의 이성적 판단에 비추어 마땅히 해야만 하는 일을 하지 않고, 대신 그 자신의 이익에 맞는 일을 하는 것이다. 이때 사람은 보통 양심의 가책을 느끼거나 죄책감을 갖게 마련이다. 거꾸로 만일 누군가 자신의 죽음에 대한 위협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사람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일이기 때문에 위증을 하지 않았다면, 그는 선하다. 반면 어려운 일을 돕는 단체에 취업한 사람은 그가 아무리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사명감으로 일을 할지라도 그 일을 하는 것이 곧 그 자신의 이익을 돌보는 것이 되는 한 그 일은 도덕적으로 선다고 할 수 없다. 그의 경우 '어려우미-돕기'는 도덕과 무관하다.
칸트의 도덕 철학에서 선악의 개념은 사람이 '도덕 법칙을 따라야 한다는 의무'와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자기애' 사이의 갈등이 주어져 있을 때에만 가능하다. 이러한 갈등 상황에서 사람이 의무를 저버리고 자기애를 선택할 때 악이 발발(勃發)하고, 그가 도덕 법칙을 따를 때 선이 발생한다. 이런 의미에서 칸트의 악 개념은 '**법칙 선택에 의한 악**'이 된다. 법칙의 악은 그 법칙이 마치 자연법칙처럼 그것의 영역에 놓이는 모든 현상들을 필연적으로 지배한다는 믿음 위에서만 가능하다.
그런데 도덕 법칙이나 자유의 법칙은, 그것이 비록 법칙의 이름으로 불릴지라도 결코 필연적 구속성을 갖지는 못한다. 게다가 하나의 행위에 대한 해석은 다양할 수 있다. 다음의 폴라 딘의 보기를 살펴보자. 우리는 그녀의 행위를 악하다고 비나할 수 있는가?
미국 **요리사 폴라 딘(Paula Deen)**은 3년 전 자신이 제2형 당뇨병(Type 2 diabetes; 성인들

이 많이 걸리는 당뇨병)에 걸린 걸 알고도 자신의 '강장(强壯) 음식(comfort food; 먹기도 쉽고 소화도 쉬운 고열량 음식)' 요리법을 계속 선전해 왔다. 그녀의 요리법은 설탕과 지방이 많이 들어가는 것(high-sugar, high-fat dishes)으로 유명하다. 이런 미국의 남부 요리법은 몸을 안 좋게 하기는(debilitating) 하지만 맛이 있다. 그녀는 자신이 당뇨병에 걸렸다는 사실을 밝힌 뒤에도 자신의 요리법을 바꿀 생각이 없다고 한다.

딘을 비판하는 사람들 가운데 한 명인 앤써니 보데인(Anthony Bourdain)은 비만 인구가 많은 미국에 이런 요리사는 **가장 나쁘고(worst)**, 게다가 자신이 당뇨병에 걸린 것을 오랜 동안 숨긴 채 이런 요리를 파는 것은 '**적절치 않다(in bad taste; 불쾌하다)**'고 말한다. 이에 대해 그녀는 자신이 1년 내내 그런 고열량 음식을 먹으라고 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이는 미국인들의 비만이 자신의 책임이 아니라 비만자 자신의 책임이라는 것을 뜻한다. 게다가 그녀는 당뇨병에 대해 별 것 아니라는 반응, 달리 말해, 당뇨병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악'이 아니라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딘은 한 방송 프로그램에서 "당뇨병은 사망 선고가 아닙니다. [당뇨병에 걸렸다는 것은] 당신이 삶에 변화를 주어야만 한다(You have to make changes in your life)[는 것을 뜻한다]."라고 말했다.

그녀에 대한 다른 비판은 딘이 자신의 병을 밝힌 시점이 그녀가 돈을 받고 제약회사의 당뇨병 약 홍보를 하기로 한 뒤라는 점이다. 이러한 비판에 대해 딘은 먼저 자신이 병을 오랜 동안 숨겨왔던 것은 그녀가 자신이 걸린 당뇨병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기다렸다."라는 말로 변명했고, 제약회사로부터 돈을 받은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받은 돈 가운데 일부를 기부하기로 했다는 말로 발뺌했다. 게다가 딘은 새로운 웹 사이트에서 교육 캠페인을 시작하기도 했다. 딘은 자신의 당뇨병 진단을 당뇨병과 싸우고 있는 2천 6백만 명의 미국인들을 위한 '당뇨병 교육'을 돕기 위한 기회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미국, ABC NEWS, World News, "Health Scare", 2012년 1월 18일 보도 내용)

만일 우리가 칸트의 '법칙 선택의 악'에 따른다면, 폴라 딘이 자신의 요리법이 당뇨병을 일으킬 수 있다는 점을 안 채 계속 TV 방송에 출연하는 것은 악하지 않게 된다. 그녀의 요리 프로는 '사람이 마땅히 해야 할 것'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사람이 마땅히 하지 말아야 할 것'도 아니기 때문이다. 그녀가 자신의 행위를 선택할 법칙은 필연적이거나 보편적일 수 없다. 그것은 그녀의 취향이나 마음에 따라 결정될 수 있는 것이다. 누구도 폴라 딘의 출연을 강제로 막을 수는 없다. 그녀가 그것을 통해 천만 달러를 벌지라도 그것의 행위를 규제할 도덕 법칙이 없는 한 그녀의 행위는 선하지도, 그렇기 때문에 악하지도 않다.

하지만 그녀가 자신의 돈벌이를 위해 그 요리법을 계속 선보이고, 그로써 누군가 그녀의 요리법에 따라 음식을 만들어 먹고 당뇨병에 걸리거나, 2천 6백만 명에 달하는 미국 당뇨병 환자들에게 투병 의지를 약화시킨다면, 그녀는 자기 기만적이거나 악하다. 자기 기만은 그녀가 자신의 음식을 절제하기 때문이고, 악한 것은 그녀가 수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당뇨병에 걸리게 만든 '질병 제공자'가 되기 때문이다. 그녀는 분명 질병을 퍼뜨릴 '옳지 않은 욕망'도 없었고, 그녀의 행위가 '마땅히 해서는 안 될 일'도 아니지만, 그녀는 그녀 자신의 몸이 깨닫고, 그녀 자신이 인정한 위험, 즉 자신의 요리법과 당뇨병 사이의 인과 관계로 말미암아 악하다.

그녀의 몹쓸 짓은 자신의 요리법이 사람들을 당뇨에 걸리게 만들 위험을 키운다는 점을 알

면서도 자신의 명성을 위해 그 요리법을 자랑했다는 것이고, 게다가 그녀는 자신이 당뇨에 걸렸다는 것을 안 뒤에도, 즉 자신의 요리법이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알고도 그 사실을 숨겨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으로서의 '좋은 마음가짐'을 저버린 것이다. 이러한 좋은 마음은 미국 사람들이 그녀와 그녀의 요리법에 큰 호감을 갖고 있는 한 더욱 필요한 것이 된다. 미디어에 의한 소비 욕망은 그것이 어린아이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는 한 폴라 딘의 '이기적인 행위'는, 그것이 비록 도덕 법칙에 거스르는 짓은 아닐지라도, 악할 수 있다.

폴라 딘의 보기는 어떤 행위가 비록 도덕 법칙과 무관할지라도 미디어를 통해 수많은 이웃에게 '악 영향'을 끼칠 수 있고, 그 결과 실제로 수많은 사람들이 비만에 걸리게 되는 한에서 '악한 행위'가 될 수 있다는 점을 잘 보여 준다. 그녀는 자신의 행위를 더욱 미화할 뿐 아니라 비만의 책임이란 결국 자신의 몸을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당사자에게 있다는 서양의 전통 윤리를 옹호하고 있다. 그녀가 비록 기부금을 내거나 당뇨병 캠페인을 벌임으로써 자신의 악을 위장할 수 있고, 더 나아가 악의 문제를 책임의 문제로 변질시킬 수 있을지라도, 누군가 그녀의 행위에 의해 몹쓸 병에 걸린다면, 걸리미는 스스로 그 병을 앓아야 하는 책임을 떠맡을 수밖에 없지만, 그녀 또한 그 걸림에 함께 책임이 있는 한, 그녀는 악한 것이다.

그녀의 행위는 비만 인구가 급증하는 사회에서 비만을 부채질 하는 것이다. 그 행위는 돌이킬 수 없는 몹쓸 질병의 발병률을 높이는 데 일조한다. 즉 그것은 그 일조한 만큼에서 악하다. 이것은 온실가스로 인한 지구온난화가 그 임계점에 다다르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상태에서 온실가스 배출을 멈추지 않는 것과 같다. 임계점을 넘어서서는 안 된다는 경계는 어떤 의미에서는 도덕적 명령보다 더 강력한 명령이다. 그렇다면 우리는 한 행위의 선악 여부를 그것을 지배하는 도덕 법칙의 관점에서만 판단해서는 안 되고, 그 행위 자체가 불러일으킬 결과나 영향력 또는 여파와 관련해서도 평가할 수 있어야 한다.

3. 서양의 전통 윤리학에 대한 비판: 한스 요나스(Hans Jonas)의 책임 윤리

악은 '옳지 못한 욕망'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일 수도 있고, '도덕 법칙이 아닌 자기애에 따른 선택'일 수도 있지만, 이러한 악 개념은 '저지름과 당함의 얼개'가 빠졌을 뿐 아니라, 행위 자체가 갖는 여파에 대한 고려도 누락되어 있다. 만일 우리가 악 개념에 이러한 얼개와 연쇄를 받아들여야 한다면, 선악의 판단은 단순히 도덕적 이성에 의해서만 이루어질 수는 없고, 그와 더불어 우리 자신이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 전체에 대한 올바른 지식들의 도움을 받아 이루어져야 한다. 자신의 행위 결과를 전혀 예측하지 못한 채 행동하는 사람은 그 결과에 따라서는 악할 수도 있고, 그때 그는 바로 그 예측하지 못했다는 이유 때문에 더 큰 비난과 책임을 받게 된다.

요나스는 칸트의 도덕 철학 및 서양의 전통 윤리학이 전제한 행위 개념을 비판함으로써 새로운 윤리학, 한마디로 말해, 책임에 근거한 윤리학을 제안한다.[4] 전통 윤리학은 사람의 행위

4 Hans Jonas, *Das Prinzip Verantwortung. Versuch einer Ethik für die technologische Zivilisation*,

를 인간중심성과 직접성이라는 두 가지 특징에 근거해 파악했다. 이는 전통 윤리학이 주로 인간과 인간 사이의 행위만을 다루었을 뿐 인간과 도구, 인간과 기술, 인간과 사물 사이의 행위에 대해서는 다루지 않았다는 것을 뜻한다. 즉 의학과 같이 인간에게 직접 가해지는 기술을 제외한 여타의 기술들은 윤리적으로 중립적인 것으로 이해되었다. 특히 현대기술은 윤리적 판단의 너머에 놓이게 되었을 뿐 아니라, 심지어 찬양되거나 경탄의 대상이 되기에 이르렀다.

하지만 기술은 그것의 손아귀에 들어오는 모든 것에게 그 자신의 '기술적 형식'을 강요한다. 기술에 의한 강요는 모든 것이 기술품이 될 때까지 지속된다. 기술의 발달은 마치 자동적으로 이루어지는 듯 보일 정도로 눈부시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이미 기술사회로서 기술의 지배에서 결코 자유로울 수 없게 되었다. 원자력 발전소는 그것의 안전성이 기술적으로 보장되기만 한다면 선이고, 자동차 기술은 그것으로써 값이 싸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켜 줄 수만 있다면 언제든 선이 된다.

원자력 기술과 자동차 기술 등은 인간의 행위에 속한 것이긴 하지만 그 행위 결과는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있다. 오늘날 인류가 보유한 과학기술은 자연을 새롭게 디자인하거나 생명을 공학적으로 설계할 수 있게 해 주었을 뿐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그 욕구에 맞춰 만들어 낼 수 있게 해 주고 있다. 기술적 행위의 결과는 그 범위가 공간적으로는 사용자가 놓인 자리를 넘어 지구 전체 또는 우주로까지 넓혀질 수 있고, 시간적으로는 현재를 넘어 미래적으로 더욱 길어질 수 있다. 이러한 범위 확장은 저질러진 행위 자체가 갖는 연쇄적 영향 관계를 통해 객관적으로 이루어진다. 기술의 힘을 빌어 한번 파괴된 환경은 더욱 급속히 파괴되거나 회복되는 데 파괴보다 더 많은 노력과 시간이 걸린다.

우리는 이제 행위를 인간과 인간 사이에서 주고받는 '좁은 영향력 관계'로만 파악해서는 안 된다. 갖가지 현대기술의 등에 올라탄 인류가 자신이 부리고 있는 기술의 파급력과 파장을 보지 못한 채 인간들만을 관심에 둔다면, 결국 인류가 그 기술에서 내려왔을 때 인류가 살 서식지는 모두 파괴되고 말 것이다. 행위에 대한 이러한 단견은 미래의 영역을 인간의 책임 밖에 있는 것, 말하자면, 우연이나 운명 또는 숙명으로 돌렸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미래가 분명 신적 영역에 속한 것이었지만, 오늘날 미래는 인류 자신의 기술적 행위들에 의해 급속히 파괴되고 황무지화되고 있다.

칸트는 도덕의 영역을 인간이 직접적으로 행위할 수 있는 범위로 제한했다. 그로써 사람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이성적 판단만으로 선악을 쉽게 판별할 수 있다고 믿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진실하고 선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지혜롭고 덕이 있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무엇을 행해야 하는지 알기 위해서 결코 학문과 철학이 필요하지 않다"[5] 라는 칸트의 말을 쉽사리 받아들일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가진 윤리가 우리의 이웃이나, 우리가 살아가는 현재나 자기 자신의 이성과 같은 '좁은 행위 범위'만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

Frankfurt a.M., 1984. 여기서는 이진우 옮김, 『책임의 원칙: 기술 시대의 생태학적 윤리』(서광사, 1994)를 살핌. 앞으로는 "(요나스, 쪽수)"로 적음.

5 I. Kant, *Grundlegung zur Metaphysik der Sitten*, Vorrede. 여기서는 요나스, 31 쪽 재인용.

이다. "너의 이웃을 수단으로 대하지 말고 목적 그 자체로 대하라"라는 명령은 그것이 이웃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진다.
그런데 인류의 잘못으로 저질러진 지구의 자기조절 능력 약화와 그로 말미암은 생명체 파괴는 도대체 누구의 탓인가? 환경 파괴가 '우리 자신'만의 잘못된 행위 때문이 아니라 헬 수 없이 많은 다른 사람들과 우리 선조들이 집단적으로 저지른 잘못된 행위들 때문에 벌어진 것이라면, 우리는 도대체 이에 대한 책임을 누구에게 물을 수 있는가? 개인뿐 아니라 정책 결정자로서의 국가 정부 그리도 UN과 같은 국제기구까지도 이러한 책임에서 자유로운 곳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그럼에도 우리는 왜 전 지구적 환경파괴에 대해 **양심의 가책이나 절박한 책임의식**이 들지 않는가?
우리는 전 지구적 지구온난화나 사막화 또는 기상이변 등에 대해 자신도 피해자라는 피해의식을 많이 받기는 하면서도 거꾸로 자신도 그에 대해 책임이 있다거나 책임을 져야겠다는 책임의식은 거의 느끼지 못한다. 이는 무엇보다 우리가 **기술의 도덕적 중립성**을 믿고 있기 때문이다. 하이데거의 기술 개념을 통해 보자면 현대 기술은 사람에 의해 통제될 수 없고, 거꾸로 기술 자체가 사람을 포함한 모든 것을 그 자신의 필요에로 몰아세우는 거대한 '세움-몰이-틀(Gestell)'과 같다. 기술의 틀은 자연뿐만 아니라 기술자와 기술의 소비자를 비롯한 모든 사람까지 생산의 자원으로 탈바꿈시킨다. 모든 것은 현대 기술에 의해 일종의 대체 가능한 부품(Bestand)이 된다. 부품은 기술적 요구와 인간적 욕망 앞에 아무런 자립성도 갖지 못한 채 하나로 돌아가는 전체적 연결 체제에 종속된다.
현대인들의 행위는 현대기술의 세움몰이틀로써 이루어진다. 이것은 사람들에게 엄청난 효율성과 편리성 그리고 생산성을 가져다주었지만, 동시에 사람들 자신이 그러한 기술을 통해 건립된 기술적 세계 속에 갇히고 마는 결과를 낳았다. 현대인의 삶은 누구라고 할 것 없이 모두 기술적 세계 안에서만 가능하고, 그렇게 우리는 **현대기술**에 **종속**되고 말았다. 이때 우리는 기술의 모든 결과에 대해 무기력하다. 이러한 종속은 마치 기술이 멈추는 순간 삶도 끝날 것처럼 거대해 보인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술의 결과에 대해 책임을 질 엄두조차 낼 수 없다.
게다가 인간의 제도는 거대한 전문화의 늪 속으로 가라앉고 있다. 모든 결정은 전문가들 사이의 합의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때 합의에 대한 책임은 개인이 아닌 조직이 진다. 전문가들마저 자신의 전문분야가 아니면 책임을 질 수 없거나 책임질 행동을 하지 않으려 하다. 어떠한 결정에도 전체에 대한, 달리 말해, 공간적으로 모든 사람과 모든 환경 그리고 시간적으로 유의미한 미래에 대한 고려는 일어날 수 없다. 모든 결정은 조각 맞추기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그에 대한 책임은 제도에게 떠넘겨질 수 있게 되었다. 그로써 살아남는 것은 사람이 아니라 제도 자체가 된다. 사람들은 제도를 위해 봉사할 때만 의미가 있다. 제도 권력의 강화는 곧 제도 폭력의 심화를 낳고 있다. 제도는 그 무엇도 책임질 생각 없이 더욱 전문화되거나 무차별화되거나 한다.
만일 현대 기술이 **가공할 파괴력**을 갖고 있다면, 그것을 창조하고 사용하는 모든 사람들은 그 경악스러운 위험과 돌이킬 수 없는 결과를 깊이 숙고해야만 한다. 이렇게 인간의 행위가 기술의 도움을 통해 본질적으로 변화했다면, 그에 다른 행위의 책임성 또한 강화되어야 한다. 만일 한 인간이나 집단의 행위가 공동체의 멸절이나 파괴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우리가

그 위험이 어떻게 발생하고, 그에 대한 안전한 대비책이 충분히 마련되어 있지 않다면, 우리는 공동체의 이름으로 그 행위를 막을 수 있어야 한다. 만일 사람이 사람답게 살 수 있기 위해, 아울러 다른 모든 생명체가 그 자신의 본질로서 살아갈 수 있기 위해서 그들마다에게 알맞은 서식지가 주어져 있어야 한다면, 우리는 거꾸로 그러한 서식지를 파괴하거나 빼앗는 일을 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우리 또는 우리의 선조가 과거나 그러한 일을 저질렀다면, 우리는 그러한 행위의 결과에 대해 함께 책임을 져야 한다.

요나스는 모든 생명체가 갖는 자기 생명 보존의 원리에 근거하여 "**생명 보존의 의무**"를 도덕적 의무로서 요청한다. 이는 '지구에서 인간의 삶이 영속될 수 있도록 하라'는 강령이자, 인간의 행위가 그러한 영속성을 위한 실제적 도움이 되도록 행동해야 한다는 강령이다. 이를 위해 인간은 자연의 순환 과정, 생명의 법칙에 순응해야만 한다. 물론 이러한 순응을 위해서는 '자연의 순환 원리'를 올바로 알아야 하고, 그 원리가 깨지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는 환경의 문제를 올바로 풀어가기 위해서는 **자연과학적 지식(가이아의 복수)과 인문학(도덕)적 실천의지(책임의 원칙) 그리고 경제학적 기획(생태경제학)이 결합**되어야 함을 말해 준다.